

문 8: 하나님께서 그 예정[미리 작정하신것]을 어떻게 이루 시는가?
답 8: 하나님께서 그 예정[미리 작정한신것]을 이루시는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성경적 근거: 창세기 1:1; 히브리서 11:3; 요한계시록 4:11; 에베소서 1:11; 다니엘 4:35; 이사야 40:26

질문 1: 하나님의 예정이 적용되는 두 곳은 어디인가?

질문 2: 창조란 무엇인가?

질문 3: 섭리란 무엇인가?

질문 4: 창조는 무엇에 의해 되었나?

질문 5: 하나님께 보였던 창조의 모습은 어떠했나?

질문 6: 창조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질문 7: 창조와 섭리의 관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설명: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창조와 그의 섭리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두가지로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의 모든것은 다 포함한다는 것이다.

창조는 성경의 교리로써 하나님께서 무(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온 우주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한다. 즉, 성경적 창조의 교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함으로 사람이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사람은 오로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 밖에 할 수 없다.

창조의 교리는 어떻게 우주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솜씨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온 우주만물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온 우주만물의 원인이며 조물주가 되신다. 창조의 교리는 우주만물과 인간은 우연히 원인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란하게 거부할뿐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가르친다.

온 우주만물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창조는 하나님의 예정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은 섭리는 무엇인가? 알쏭달쏭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쉬지 않으시고 주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1) 모든 창조물을 보존하시며 (2) 모든 창조물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고 또 (3) 모든 창조물을 통해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말한다. 아마 스스로 생각했던 정의와는 다소 다르다는 느낌을 갖을 것이다.

다르게 섭리를 설명하자면 섭리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과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섭리안에 있다.

창조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행사를 말한다 하면 섭리는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시는 과정을 말한다. 창조가 우주만물을 존재하게 했다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지으신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보전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와 섭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만족시킨다. 성경은 창조와 섭리는 이론이 아닌 진리이며 사실로 다루고 있다. 만약, 창조와 섭리가 진리와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가르치고 있다. 크리스찬들로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받아드려야 한다. 창조와 섭리는 크리스찬들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초석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창조를 믿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러나 창조를 믿고 받아드린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찬은 반드시 창조를 믿을것은 물론이며 그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화론은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인가를 설명해준다고 말한다. 그 것은 억지일뿐이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진화론은 창조와 달리 진리를 주장할수 없다. 아직도 실험 대상일뿐 아니라 계속 그 “론”이 바뀌고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진화론이 진리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바뀔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때 다른 것이 진화론이다. 진화론은 절대로 진리를 찾아낼 수 없다. 그 이유는 진화론은 시작부터가 잘 못 되어있기 때문이다. 진화론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가 잘 못 되어있다.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웠기 때문에 정답을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것과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심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거짓된 것이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와 같은 것이다.

진화론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주만물에 대해 좀 더 알고싶은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것 뿐이다. 진화론 속에는 인간의 특별한 존재가치가 없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도 끊임없이 긴 우연과 막연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어찌다 존재하는 하나의 진화의 과정일 뿐이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진화론은 사람과 짐승들을 생물학적인 차별을 제외하고는 구별하지 않는다. 성경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진화론안에는 사랑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을뿐 아니라 사랑을 설명할 수도 없다. 진화론은 의로움, 정의, 용서 등의 가치들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진화론은 사람의 영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도, 또 할수도 없다. 진화론속에서는 모든 사람을 영이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창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뤄졌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3) 이런 명령이 인간의 창조를 제외한 모든 것의 창조에 적용이 되었다. 사람은 명령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흙을 빚어 하나님의 입김을 통해 만드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7) 그리고 창조의 중요성은 바로 우주만물을 계획하시고,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여러번 반복하여 좋았더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또 기쁘게 했다. 창조는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을 피조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로마서 1:18)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좀더 깊이 알아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를 깨닫아야 한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라고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1:3)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모든 것을 불드시고 계심을 말한다. 이것은 성자께서 직접 모든일에 섭리하고 계심을 또한 말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1:17 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28)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 9:6)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광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욥기 34:14-15, 참조: 시편 104:29)

위의 모든 성경구절들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활동하고 계심을 말해준다. 한가지 분명히 잡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일을 만약 중단하신다면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것인가? 우주만물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것이며 인간은 호흡을 유지하지 못 할 것이다.

우주만물이 존재하는 것과 사람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증명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인간의 과학은 존재할수 없다.

둘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든 창조물에게 다가오시는 섭리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가에 대한 성경구절만 소개한다.

마태복음 6:11

빌립보서 4:19

시편 139:16

욥기 14:5

갈라디아서 1:15

예레미야 1:15

사도행전 17:28

예레미야 10:23

잠언 20:24

잠언 16:9

시편 75:6-7

누가복음 1:52

시편 127:3

고린도전서 4:7

시편 18:34

잠언 21:1

에스라 6:22

에스라 1:1
시편 33:14-15
빌립보서 2:13

셋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가 죄를 만드시지 않으셨지만 좋고 나쁜것 모든 것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신다.

로마서 8:28
창세기 50:20
시편 76:10
로마서 9:14-24

하나님의 예정은 창조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체험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의 결정과 행동을 어떻게 주관하고 있나?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함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제 4 장 창조에 관하여

4-1. 만물 창조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엿새 동안에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다 무(無)로부터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들은 다 매우 좋았다.

4-2. 사람 창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들을 갖게 하셨으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능력을 소유하게 하셨으나; 변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져 있어서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외에, 그들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복하였고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제 5 장 섭리에 관하여

5-1. 섭리의 의미

만물의 크신 창조자 하나님은 그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 그의 무오(無誤)한 예지(豫知)와 그 자신의 뜻의 자유롭고 불변적인 계획을 따라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셔서 그의 지혜와 능력과 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송케 하신다.

5-2. 일반적 방식들

비록 모든 일들은 제 1 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의 관계에서 불변적이고 무오하게 일어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 그는 제 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것들을 혹은 필연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혹은 우연하게 일어나게 정하신다.

5-3. 특별한 섭리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 수단들을 사용하지지만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것들 없이, 그것들을 초월하여 그리고 그것들을 역행하여 자유롭게 활동하신다.

5-4. 죄와의 관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리고 무한하신 선이 그의 섭리에 크게 나타나므로, 섭리는 심지어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들에까지 미치는데,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와 함께 자신의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다양한 처리 방식으로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그것들을 제한하시고 다른 경우에는 그것들을 정하시고 통치하심으로써이다. 그러나 그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으니, 그는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셔서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이시지도 않고 이실 수도 없다.

5-5. 성도의 죄 문제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자녀들을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험들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부패성에 버려두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전의 죄들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의 숨은 힘과 거짓됨을 그들에게 드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며; 또 그들의 후원을 위해 자신을 더 친밀하고 계속적이게 의지하도록 그들을 일깨우시며, 미래의 모든 죄의 기회들에 대하여 그들로 더 깨어 있게 하시며, 기타 여러 가지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함이다.

5-6. 악인들에 대한 섭리

의로우신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전의 죄들 때문에 어둡고 강박케 하신 저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가 그것으로 그들의 이해를 밝히시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셨을지도 모를 그의 은혜를 단지 그들에게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을 때때로 거두어 가시고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로 삼는 대상들에게 그들을 드러내시며; 게다가 그들을 그들의 정욕들과 세상의 시험들과 사탄의 권세에 내어 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들 아래서도 자신들을 강박케 하는 일이 생긴다.

5-7. 교회에 대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듯이, 섭리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교회를 보살피며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하도록 처리한다.
